

이찬진 “금융지주 CEO 승계과정, 투명·공정성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 이사회의장 간담회
“사외이사, 경영진 견제기능 수행
지배구조 개선방안 현재 논의중
금융사, 자율 방어체계 구축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의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미흡한 점이 없도록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이사회 의장과 의 간담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CEO 승계 절차 관련 통제 강화 등 사외이사가 권한과 여건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사외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사가 산업에 대해 깊고, 넓은 시각을 보유하고 독립적 지위에 맞는 책임있는 판단과 실천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사업다각화, 경영진 보수 및 평가(KPI) 등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의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디지털

공격이 잇따르는 만큼, 정보기술(IT) 보안 대응 역량의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격대상이 비핵심시설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AI가 해킹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동시다발적 공격이 상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IT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을 능동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자율 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금융 공급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

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은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다”라며 “수동적·일회성 지원이나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그룹의 경영전략, 강점을 살린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성과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해외

점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외점포의 사고 예방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외는 법규 및 거래관행이 상이하고 거래구조가 다른 현지 특화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리스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점포의 리스크 측정 및 대응의 단계별로 원칙을 재정립하고, 본점의 정책과 관리수준이 현지 영업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진 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중심의 시스템과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금감원도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사항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현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우리은행, 삼성월렛 머니 해외결제 확대

**별도 앱 실행 없이 단말기 태그 결제
오프라인 0.5%, 온라인 1.5% 적립**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간편결제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양사가 공동 출시한 ‘삼성월렛 머니’가 출시 1년 만에 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가운데,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은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X삼성월렛 머니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영업 확대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삼성월렛 머니’의 유료 가입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충전제와 가운데 우리은행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개 은행 중 42%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삼성월렛 머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삼성월렛(삼성페이)’을 기반으로 은행 계좌를 연결해 충전하고, 오프라인 및 모바일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간편결제·선불결제 수단이다. 우리은행의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삼성월렛 머니’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안송진 기자

선불 결제 시스템과 연계한 만큼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및 NFC(근거리 무선 통신)를 지원하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매장이자라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빠른 가입자 성장 배경으로 결제 편의성과 결제 혜택을 제시한다. 삼성월렛머니는 별도의 앱 실행 없이도 결제 단말기 태그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결제 시 0.5%, 온라인 결제 시 1.5%의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가맹점과의 직접 제휴를 통해 카드사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해 고객 혜택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 머니의 전략방향성으로 ‘노 카드, 노 캐시, 노 앱’의 결제 환경을 제시했다. 해외 여행 시 별도의 환전이나 실물카드 발급 없이, 국내에서 활용했던 삼성월렛 머니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삼성월렛 머니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없는 ‘노 앱’ 결제환경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도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시 현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권번호 및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지만, 삼성월렛 머니 이용 시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해외 간편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은 “간편결제 시스템의 발전은 결제 시장에서 현금은 물론, 카드까지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라며 “다만 해외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앱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월렛 머니는 개인정보 제공 없이도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노 앱’ 결제환경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

신한금융, 신한·제주은행장 선임절차 착수

내달 압축후보군, 12월 최종후보 추천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의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 달 최종 압축후보군을 선정하고 12월 초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가 지난 27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경위는 이날 신한은행장과 제주은행장 1차 압축후보군에서 최종 압축후보군을 2~3배 규모로 선정했다. 다음 달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압축후보군을 확정할 뒤 12월 초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승계 절차에서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이 강화됐다. 은행 임추위가 자체적으로 후보군을 심의·추천하고, 지주 자경위가 이를 검토해 압축후보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달 21일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은행 임추위에



/신한금융그룹

승계후보군 정보를 공유했다. 은행 임추위는 대내외 경영환경과 향후 전략 방향 등을 고려해 차기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자경위에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절차인 만큼 별도의 심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경영승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경위 최종 회의에 은행 임추위원장이 참석해 후보군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나유리 기자

신보, 잠실MICE 사업에 1조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서울 잠실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잠실MICE 조성 사업에 1조원 규모의 산업기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잠실MICE 사업은 서울국제 교류복합지구(SID) 지구단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핵심 프로젝트다.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영동대로광역복합환승센터까지 연계되는 글로벌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따라 잠실 일대에는 국내 최대

3만석 규모의 돔야구장과 서울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선다. 컨벤션센터, 다목적 스포츠코플렉스를 비롯해 국제업무 및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재원 전액을 민간 자금으로 조달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향후 40년간의 운영수익을 서울시 균형발전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민·관 공유 상생 구조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송진 기자

국내은행 17곳, 포용금융 점수 매긴다

금융위,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성적표’가 도입된다. 단순히 중·저소득자에게 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넘어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 은행에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체계는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금융권 전반에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단순한 실적

점검만으로는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대상은 국내은행 17곳이다. 자산 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대형은행 7곳, 중소형은행 4곳, 인터넷은행 6곳으로 구분해 그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지배구조(10%),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이다. 특히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전체 평가 비중의 70%를 배정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